



▲ 카카오프렌즈 친구 추가하러 가기

### 그린피스와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린피스를 카카오프렌즈 친구에 추가해 보세요.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다양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프렌즈 친구를 맺어 주세요.

### COVER STORY

#### 첫 숨을 쉬는 새끼 혹등고래

어미 혹등고래가 첫 호흡을 하는 새끼고래를 상어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혹등고래는 새끼를 낳기 위해 서호주 Ningaloo 만의 따뜻한 바다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린피스는 Ningaloo 산호초 뒤편에서  
갓 태어난 아기 혹등고래와 어미고래의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표지 사진 © Alex Westover / Greenpeace

- ☎ 02-3144-1997
- ✉ sukr@greenpeace.org
- 🏠 www.greenpeace.org/korea
-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 @greenpeacekorea
- 📺 @greenpeacekorea
- 🔍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 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용기를 안크로 인쇄되었습니다.

2022 연차보고서

2022

ANNUAL REPORT

### CONTENTS

- 02 2022 캠페인 성과 TOP10
- 04 인사말
- 06 2022 상세 프로젝트
- 26 후원자 이야기
- 30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supporter.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 홍콩

10/F, Stelux House, 698 Prince Edward Road Eas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 +852 2854 8300

####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0)10 6554 6931

#### 타이베이

No.109,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45,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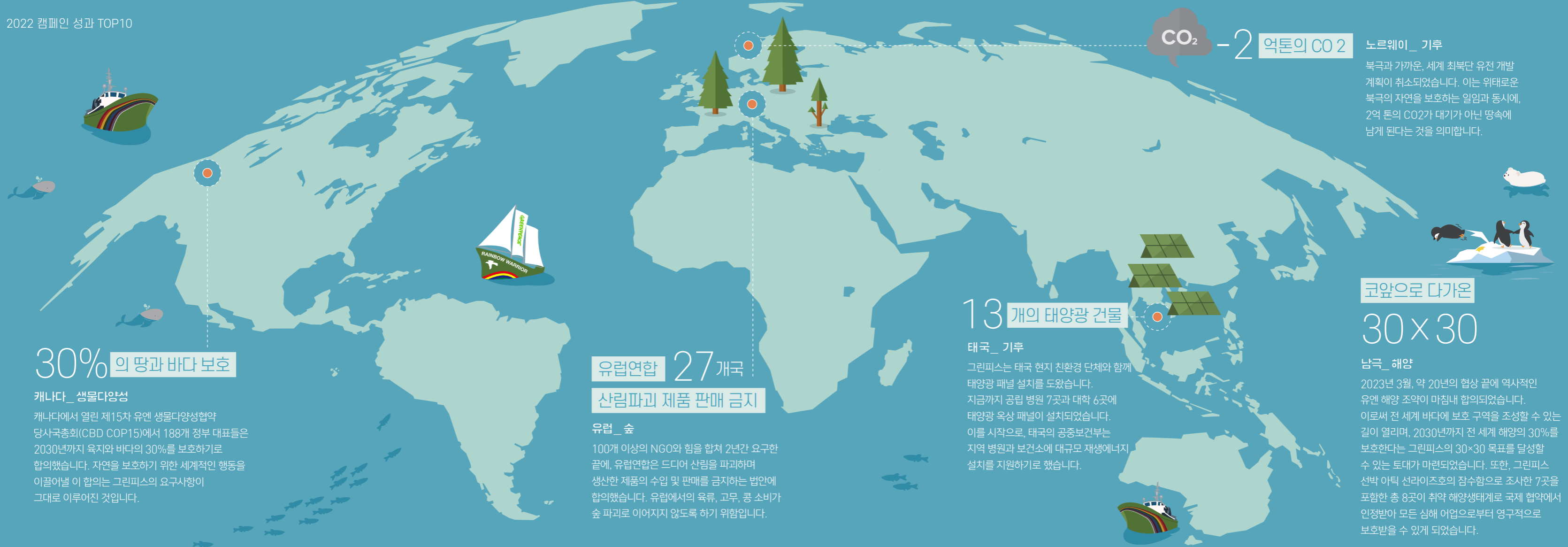
#### 도쿄

Tsao Hibiya 12F, 3-3-13 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4, Japan  
☎ +81(3) 5338 9800

2022 연차 보고서 통권 9호  
발행일 2023년 7월 28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디자인수다







## 국경을 넘어선 영향력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가 그 규모와 속도를 점점 키워간 한 해였지만, 푸르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동아시아에서 224,0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그린피스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 유럽\_ 해양

심해 채굴 산업이 부상하며,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린피스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모아 심해 채굴 산업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정부는 심해 채굴을 중단할 것을 기업에 촉구했습니다.



### 이집트\_ 기후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기후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7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손실과 피해'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_ 기후

동아시아 지역의 IT기업이 급성장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비상사태에 이들 기업의 행동 또한 시급합니다. 삼성전자와 소니,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동아시아\_ 기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밸류체인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과 판매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동아시아\_ 플라스틱

UN에서 채택된 국제 플라스틱 조약, 2030년까지 최소 25%의 재사용 포장재 이용을 선언한 코카콜라, 생분해 플라스틱을 금지한 대만 정부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린피스가 자체 앱을 개발하여 3,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조사를 진행하고 안일한 기업의 태도를 폭로했습니다.



# 지구의 미래를 위한 회복력

## 그린피스 후원자님께

3년 만에 처음으로,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안도감과 함께, 지난 3년간 우리 공동체가 보여준 회복력으로 더 큰 위기인 기후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화는 지구 환경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감시, 플라스틱 소비 감소,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삼성전자, 소니, 텐센트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탄소 중립 약속과 홍콩과 대만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지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수많은 이들의 생존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후원자님과 함께 더 큰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이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후원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큰 희망의 빛을 봅니다.



*Nam Boonwon*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Jui-pyeong*  
쑤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 Tuane Ferrandes / Greenpeace



© Chris J Ratcliffe / Greenpeace



© Greenpeace / Tashika Takahashi



신혼부부에서 은퇴한 기업가, 교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업과 관계 없이, 전 세계 시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한 움직임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만듭니다.



© Martien van Dijk / Greenpeace



© Bente Stachowska / Greenpeace



© Yehin Kim / Greenpeace



© Yehin Kim / Greenpeace



# 다시 쌓아 올리는 희망

2022년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이닥친 한 해였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부터 가뭄까지, 극단적인 기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낱알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그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곧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원자님들의 변치 않은 지원으로 그린피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Jilson Tiu / Greenpeace

##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바람

그린피스는 글로벌 환경단체의 장점을 살려 세계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COP27에 참여해 기후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을 조사하고, 태국 공공시설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각국 사무소와 협력해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 Pedro Armestre / Greenpeace

### COP27, 기후정의 첫걸음

2022년 11월 6일부터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1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 피해국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8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회의는 쉽사리 끝나지 않아 하루 연장되어 19일까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정상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남반구 국가(개발도상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의 시민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국가와 기업들의 책임을 물기 위한 '기후 정의'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 및 기업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기금이 기후 취약 국가 및 지역사회의 손실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화석 연료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친환경 건축 지원

2022년 7월, 그린피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체르노빌 원

전의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제삼자 조사를 위해 핵 전문가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격이 이어지는 외중에도 체르노빌을 방문해, 러시아군의 습격으로 인한 파괴 현장을 조사하고 방사능 오염 상태를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현지 환경단체와 협력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폭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인근 호렌카 병원이 정전 중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와 히트 펌프 시스템을 설치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태국의 태양광 에너지 개혁

그린피스는 태국의 학교, 병원 등 13곳의 공공 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태국 보건부는 국가 예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태양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해 향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태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100만 가구, 8천 개 병원, 3만 개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셋이 모여 바꾸는 자동차산업

'3의 법칙'을 아시나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그린피스의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역시 다양한 전문가와 산업계 노동자들과 협력하고, 베이징 및 도쿄 사무소와 협업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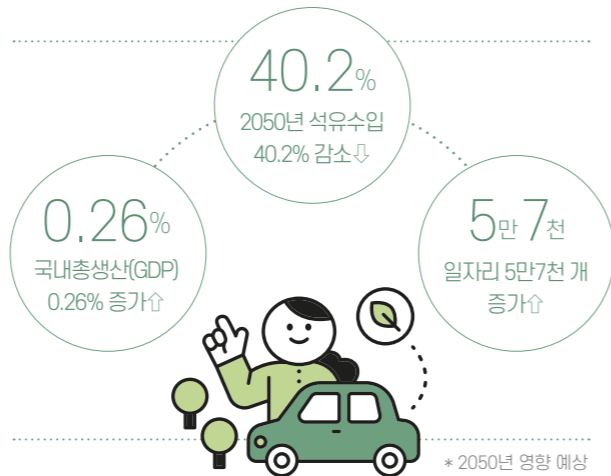


## 자동차 노동자와 정부, 기업의 협력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내연기관'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화두입니다. 2022년 한국의 대선 후보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린피스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협력해 현장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및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94%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2%가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실,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자, 기업이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 탈내연기관 효과는?

영국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에 의뢰한 결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의 협력

그린피스 서울, 도쿄, 베이징 사무소는 지난 9월 <2022년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 11월 <1.5°C 한계치 초과 내연차 판매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과 전기차 전환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아쉽게도 기업들의 기후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토대로 자동차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각국의 언어로 시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세 사무소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도쿄와 베이징의 캠페이너들에게 동아시아 사무소가 함께하는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의 장점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켈리 황 (Kelly Huang) 디지털 캠페이너



대니얼 리드 (Daniel Read) 도쿄 사무소 캠페이너



항바오 (Hang Bao)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

"동아시아 친환경 자동차팀이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담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노동자, 일본의 산업 전문가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소리를 낸 것이 한·중·일을 넘어 내연기관 퇴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자동차 공급망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는 각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도쿄팀은 토요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자동차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덕분에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을 촉구할 수 있었죠. 2023년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세 사무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중·일 산업계가 서로 긴밀하게 엮여있는 것처럼, 그린피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도 서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중국은 주요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캠페인이 중요하죠. 작년에 베이징팀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자동차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 언론의 관심도 받았고요. 올해에는 중국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의 탈탄소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힘을 합치고 서로를 동료로 여겨야 합니다. 동아시아 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후원자님들의 협력

2022년, 그린피스 친환경 자동차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죠. 올해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한 것도, 다양한 환경단체와 협력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업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의 캠페인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대한 화석연료 산업계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동료이자 서포터인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을 응원해 주세요!



© Taishi Takahashi / Greenpeace



# '원전보다 안전' 우리의 안전은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안전보다 원전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켜 보다 빠르게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원전이 극단적으로 정치화, 정쟁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영역이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판단이 정치적 논리와 입장에 따라 편하되거나 등한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전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고 원전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가를 통한 국제법적 쟁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적발하고 관련 국제법 강화와 해양 보호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시민단체로서 유일하게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 개최된 IMO총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의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일부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IMO총회 법률국은 오염수 방류 행위가 '해상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그린피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국제법상 위반 요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한국이 국제 해양재판소를 활용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왔습니다.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시민들과 힘을 합해 각국 정부가 응당한 대응을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 조치 방안을 그린피스와 함께 기획한 국제환경법 변호사 단권 커리를 초청해, 국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세부 정보를 알렸습니다.

## 초르노빌 방사선 조사 진행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의 원전과 방사선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과학자들의 초청으로 2022년 7월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방사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수도 키이우에 물리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의 방사선 오염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았습니다. 초르노빌 지역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은 고농도 오염지역에 참호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불을 내거나 로켓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을 확산시켰는지, 특히 수도인 키이우로 향하는 도로 및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식수원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한 주변 환경의 방사선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 월성 원전의 위험을 알리다

그린피스는 지난 2021년부터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선 오염을 추적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규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오랜 조사 끝에 2022년, 그린피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원전 내부를 직



©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조업하며 바다를 가꿔왔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왜 바다에 쓰레기를 왜 버렸냐는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를 더럽히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바다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접 점검할 수 없기에,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월성 원전을 방문해 누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언론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원전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약 7일 동안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것은 물론, 갑상선암을 얻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약 7년 동안 진행해 온 갑상선암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기금 모금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845명의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총 22,084,195원을 법률 소송단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2023년, 기후위기에 노출된 국내 원전의 위험 요소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노후 원전들의 원자력안전법 규제 위반 사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 의하면 노후한 원전 약 10기들이 너무 쉽게 수명연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안전보다 원전이 앞설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은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많은 성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Greenpeace



#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살얼음 위 에 서 있으며 앞으로 10년, 우리의 기후행동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목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IPCC: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기후위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몇 점?

서울사무소는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기후정책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이에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를 막아달라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요. 1만 4천 명의 초등학교들의 고사리손으로 쓴 편지를 당시 4명(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답장을 받았습니 다. 또한 KBS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과 함께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를 보내고, 이들의 정책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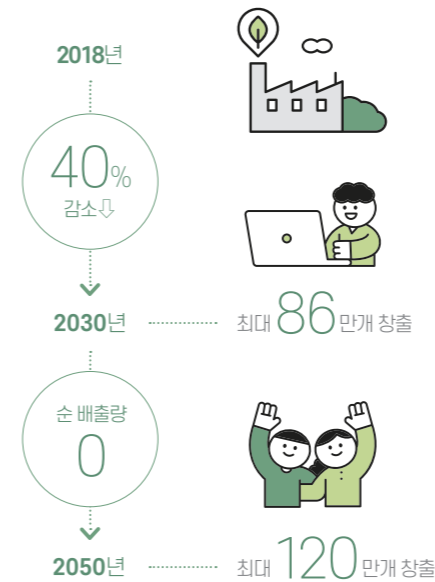
다. 각 캠프에 꼭 필요한 기후정책 아젠다를 전달해, 대선 공약에 기후와 관련된 정책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구를 위한 활동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흔히 퍼져있는데요. 그린피스는 이런 편견을 깨고 기후위기 대응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의 정치경제연구소와 함께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세대학교 공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후위기는 국가 역량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민의 연대입니다. 우리 국가가 정파를 뛰어 넘어, 시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린뉴딜 시민활동 참가자 김준성 님

과대학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정계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

8월에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역 광장에 거대한 북극곰 캐릭터 '열받곰'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열받곰 앞에서 '너무 더워서 열받곰', '기후재난 두렵곰', '재생에너지 늘리곰'이라고 적힌 배너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제3기 '그린뉴딜 시민행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3개월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기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순위를 평가하는 활동을 펼쳤는데요. 올해 3월에는 13명의 참가 시민들이 국회 인근 광장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후국회'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야 하지만, 정부가 최근 공개한 탄소중립 정책을 보면 산업계의 부담은 줄여주고 2035년 내연기관 등록금지 공약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더 줄어들었죠.

그린피스는 이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감시하고 관심을 보내 주세요!





# 지구의 혈액, 바다를 드디어 지켜낼 수 있을까?

바다는 지구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탱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탄소의 25%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의 50%를 만들어 내고 있죠. 원활한 혈액 순환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주듯, 바다의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 해양 보호, 어디까지 왔니?

해양 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일부 국가들의 이기심으로 이전까지의 해양조약 체결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해양 보호를 위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0여 개 국가가 참석하는 비상 회의가 개최되었고, 2주간의 긴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내 참여국 전체가 '글로벌 해양조약'에 합의하며 전 세계 바다보호를 위한 해양조약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글로벌 해양조약'의 체결은 사실상 지구 최초의 공해 보호를 위한 약속입니다. 건강한 바다를 위한 역사적인 이번 변화는 그린피스 해양 보호 캠페인을 오랫동안 지지해 주신 후원자님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토대로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여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 보호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후원자님의 힘이 더해진다면 바다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월 | 2022 그린피스 남극탐사



그린피스는 2022년 1월, 기후위기로 인한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환경감시선 아틱스타이즈호와 2개월간 남극을 탐사했습니다. 탐사를 통해, 젠투펩권의 대규모 서식지 이동을 발견하고 대폭 감소한 해빙 면적을 관측하는 등 기후변화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남극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리고 남극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8월 | 해양 보호 드론쇼



© Sungwoo Lee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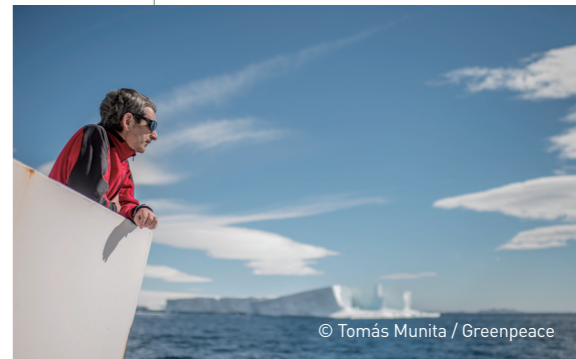
### 3월 |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촉구' 서한 전달



© Sungwoo Lee / Greenpeace

2022년 3월 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4차 회의를 한 달 앞두고, 그린피스는 전 세계 시민의 서명과 함께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일 서한 전달에 앞서 한국 정부에 공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대형 모래시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7월 | 남극 사진전



© Tomás Munita / Greenpeace

2022년 1월, 그린피스가 환경감시선에서 목격한 남극 생태계 변화를 생생히 담은 <2022 그린피스 남극 사진전>이 7월, 서울 용산에서 열렸습니다. 총 4만여 명의 시민이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남극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서명과 후원을 통해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12월 | 30x30 지정을 위한 세계 시민 서명 500만 돌파



© Lewis Burnett / Greenpeace

그린피스는 공해보호를 위한 30x30 캠페인을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세계 시민들이 30x30 캠페인 서명에 동참하여 공해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그린피스는 드론 3백 대를 이용해 고래를 포함한 멸종위기 바다생물을 서울숲공원 밤하늘에 띄웠습니다. 이 드론쇼는 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공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시민 2천여 명이 방문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지 주셨습니다.



#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즉,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자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한국의 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서부터, 아마존의 생물다양성과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까지. 그린피스가 펼치고 있는 생물다양성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 벌을 지켜줘!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벌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백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생태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22년, 국내 벌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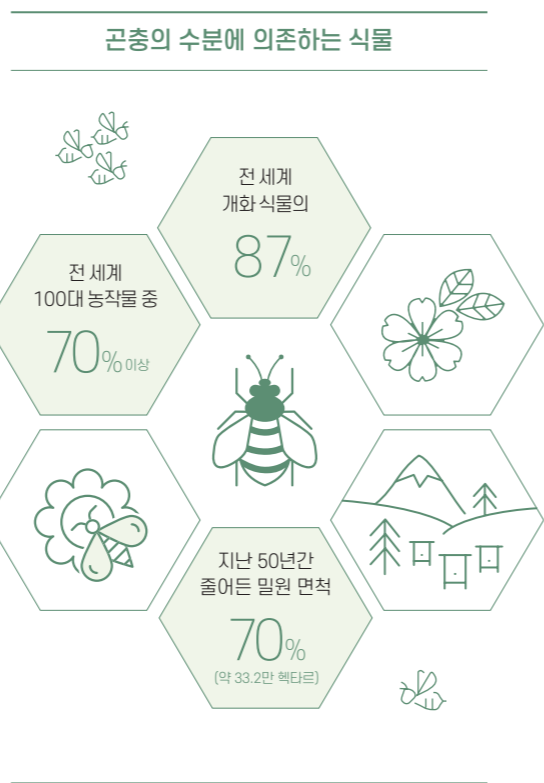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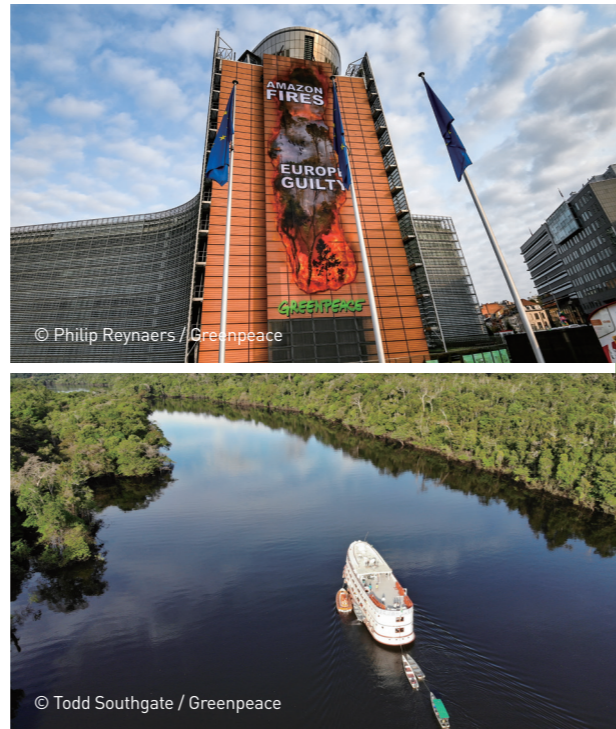
먼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문제에 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콘텐츠들을 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꿀벌이 처한 위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기후정의 주간(9월 19~28일)에 맞춰 비대면 마라톤 행사 ‘어스앤런 허니비’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가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켜고 달리기 시작하면, 꿀벌 캐릭터가 꿀벌에 대한 정보는 물론 기후위기 문제까지 재미있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 벌 살리기 위원회를 응원해 주세요!

2022년의 캠페인에 이어, 2023년에도 서울사무소는 보다 강력한 벌 살리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피스는 농식품부와 더불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의 ‘벌 살리기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해 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꿀벌의 실종은, 오늘날 한국의 환경이 벌을 비롯한 수분 매개자가 살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꿀벌뿐 아닌 4,000여 종에 달하는 야생벌의 멸종은 자연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벌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께 꾸준히 알리고,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 아마존 생물다양성과 인권을 위한 연대

그린피스는 수년간 아마존 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에서는 불법 벌채와 채굴, 탄광 개발, 마약 밀매를 일삼는 조직 범죄단이 판을 치고 있으며, 수많은 현지 원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그린피스와 함께 활동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돔 필립스와 브라질 원주민 인권 운동가 브루노 페레이라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어지는 환경 범죄를 조사하던 중 실종된 채 발견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들이 실종된 시점부터 브라질 정부에 발 빠른 대처를 요청했는데요. 활동가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브라질 정부를 대상으로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잔혹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린피스는 아마존 탐사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마존’ 탐사는 16년 동안 숲을 보호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온 마니코레 강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브라질 과학자들을 초대에 조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 유럽의 삼림 벌채 방지법

그린피스 유럽은 2020년부터 160개 이상의 환경보호 단체와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삼림 벌채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3월, 유럽연합(EU)은 숲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EU에 물건을 팔려면 제작 과정에서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린피스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된 새로운 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피스는 더 많은 나라들이 숲을 지키고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향하여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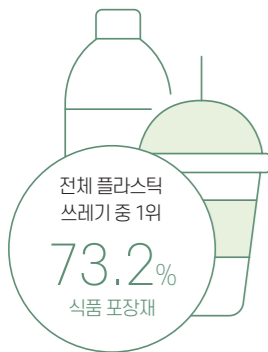
2022년 11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 Arnaud Vittet / Greenpeace

### 2022 플록조사

참가 인원: 3,506명



### 시민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그린피스는 지난 3년간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고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의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총 14만 5,205개)의 73.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중 상위 10개 업체 모두 식음료 업체로 이들 업체의 제품이 22.7%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23년에도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주요 플라스틱 오염 유발자인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가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2022년 11월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다섯 번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성공한다면 환경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는 본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마지막 협상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Manuela Lourenço / Greenpeace

### 동아시아 사무소와 공동 캠페인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려면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사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서울 사무소와 대만, 홍콩, 도쿄 4개의 사무소는 재사용의 긍정적 요소를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무소에서 함께하는 만큼 파급력을 키워 재사용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생산법을 개발해 주세요. 같이 사는 나라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 오희영 참가자



© Daiyoon Lim / Greenpeace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항상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반 아이들과 함께 플록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페트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과대 포장을 줄이고 포장재 재질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 김지수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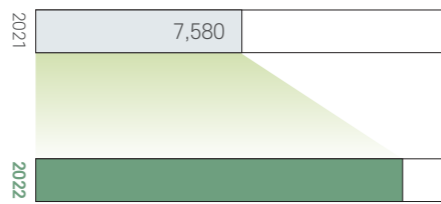
© Daiyoon Lim / Greenpeace



#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

2022년은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시민참여팀은 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린피스는 지구를 위한 변화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13,513명



1번 이상 그린피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49,524명



2022년 서울사무소의 자원봉사 시간

63,541 시간

##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14,617명 아이들의 편지

그린피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594개의 초등학교에서 14,617명 어린이들의 편지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네 후보는 그린피스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어린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 Yeo-sun Park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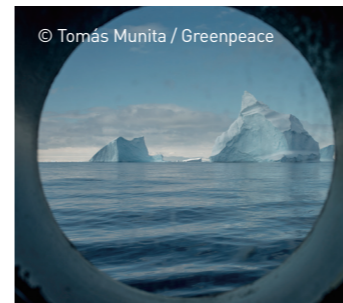
© Daiyoon Lim / Greenpeace

## 국내 최대 플라스틱 시민참여 조사

2022년 8월 3,506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플라스틱 조사 활동인 '플록조사'를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는 145,20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했습니다. 본 조사는 그린피스에서 3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민이 모아주는 플라스틱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지, 어떤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사용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 Tomás Munita / Greenpeace



© Tomás Munita / Greenpeace



© Yejin Kim / Greenpeace

## 함께 봐요, 남극의 변화

2022년 7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남극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린피스 탐사팀이 직접 목격한 남극의 사라져가는 빙하, 펭귄을 포함한 남극 생태계와 해양 환경 변화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했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시민분들께서 방문해 남극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들이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경험으로 그린피스를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도 함께, 그린피스

환경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과 협업하여 15차시의 환경 교육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열린 지 6개월 만에 2,624명의 선생님들이 수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린피스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과 '기후행동교사모임'을 조직해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이끄는 기후행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우리가 감시한다

2022년 12월, 국회의원의 기후행동 대응 활동을 감시하는 그린뉴딜 시민행동 3기를 출범했습니다. 4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모니터링, 국회의원 타운홀 미팅, 정부와 국회 대상 기후위기 대응 촉구 퍼포먼스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Greenpeace

## 달리기로 알리는 꿀벌 대위기

그린피스는 지난 9월 전 세계 식용 작물 75%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어스앤런 허니비'를 진행했습니다. 3,029명의 참가자가 참여했고, 특히 참가자들이 GPS를 켜고 길을 달리면서 'CLIMATE JUSTICE'(기후정의)라는 글씨를 만들어내는 GPS 드로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세대 공대 학생들과 함께한 해변 정화 활동, 자원봉사자에게 그린피스를 소개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 시민참여캠페인팀은 시민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2022년, 그린피스는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고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흥미롭게 캠페인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대중에게 문제를 알리는 방법이 바로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TV 뉴스 및 신문, 온라인 방송 등 더 많은 언론에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대중과 언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나 보고서, 현장 과학 조사 내용이 공중파 저녁 뉴스에 보도되거나, 그린피스의 캠페이너가 직접 출연하는 등 대표적인 환경 전문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대선 기간에는 KBS와 함께 '기후위기 공약검증'을 진행해 9시 뉴스에 소개되었으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플록조사'의 경우 MBC 뉴스데스크의 기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오염수 누출, 초르노빌 원전 현장 조사, 현대기아차의 독일 배기 가스 배출 조작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많은 언론이 그린피스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 2. 온라인 채널을 통한 캠페인 소통

그린피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은 온라인에서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많은 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캠페인 콘텐츠를 제작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기표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과 대선 후보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광화문 앞에 가상 기표소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 기표소>에 들어가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급속히 불어날 홍수에 광화문이 잠기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재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투표의 소중함을 알리는 오프라인-디지털 연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



© Yejin Kim / Greenpeace



### '은꿈지' 웹툰 작가와의 협업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은꿈지 작가와 네이버웹툰 '기후변화 그림일기'를 연재하며 기후위기를 비롯해 환경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상기후 현상부터 생물다양성과 플라스틱 제로, 해양 보호 등 여러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알기 쉬운 카드 뉴스

일주일에 한 번,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SNS 채널에 환경 이슈를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백화탄 산호초,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식품별 탄소 배출량, 째어진 가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카카오 친구 채널

그린피스의 최신 소식을 카카오 친구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인 소식뿐만 아니라 최신 환경 이슈를 담은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3.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인게이지먼트 활동

인게이지먼트팀은 더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경 문제에 의식 있는 스타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그린피스 캠페인을 친근하게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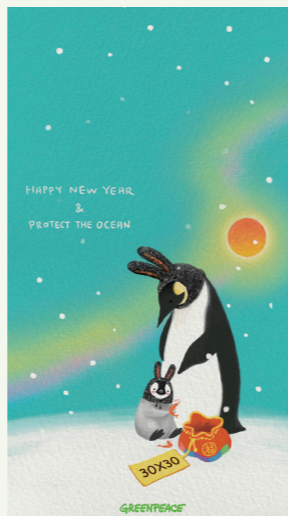


####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동물 7종(벵골 호랑이, 푸른바다거북, 사막도마뱀, 반달가슴곰, 흰족제비, 황제펭귄, 코알라)을 중심으로 '귀여움을 구해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제이유나가 캠페인 주제곡의 작사, 작곡을 맡았습니다. 제이유나는 "기후위기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작게만 느껴졌는데,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를 닮은 동물 테스트'에는 총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 해양보호 애니메이션에 참여한 장윤주

애니메이션 '모두를 위한 바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의 내레이션에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독립애니메이션협회의 협업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윤주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속상하고 미안하다'면서 '이번 참여가 환경 보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지구를 위한 힘! #용기력(용기내)

'용기력'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맞서 행동하는 힘'입니다. 용기력 테스트는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계산하고, 자신의 '용기력'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만 명이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 바다를 지키는 배경 화면

그린피스 후원자님이신 김물길 작가님과 협업해, 연말연시 기간 해양 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바다 생물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담은 배경 화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총 3,4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해양 보호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4.

케이팝(K-Pop) 스타들이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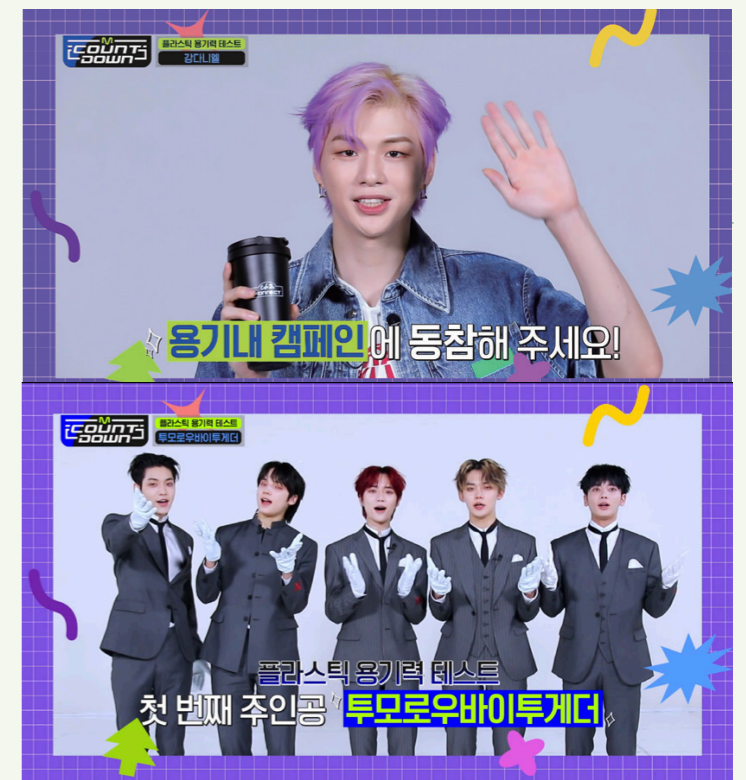
####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 어린이 환경모험 편

조석 작가의 국민 웹툰 '마음의 소리'와 함께 어린이들이 기후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Btv 챔키즈(ZEM Kids)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총 7편의 에피소드는 여행을 떠난 조석 가족이 기후위기로 갈 곳을 잃은 북극곰의 집을 찾아주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환경활동가 겸 방송인 줄리안 쿤타르트, 그린피스 이인성 캠페이너의 환경 강의로 유익함을 더했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 케이팝(K-Pop) 스타들이 그린피스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스타들이 지구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 케이팝(K-Pop) 스타들이 전하는 지구를 위한 힘! '용기력'

주목받는 4세대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만능 엔터테이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이 2022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음악 방송 엠카운트다운(M Countdown)에서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주 동안 방송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용기력 테스트'에 직접 참여해 일 년 동안 내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알아보았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용기력을 함께 모으자'는 메시지를, 강다니엘은 '용기력 테스트에 참여한 팬들에게 사인 앨범을 선물하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플라스틱 오염이 적었던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 TO. 그린피스

그린피스의 원동력이자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후원자님들입니다. 그린피스에 가장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직접 적어 주신 소중한 메시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린피스에게, 또 다른 후원자님들께 보내는 행복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원금으로 밤에 밥을 못먹게드려서 항상 정반박에  
도움이 되는 기분이예요. 안좋은 기회 될 때마다 행복동,  
식재료도 동참함께요 - 지름 -

척박한 땅이 씨앗을 뿌리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그린피스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흥성들 -

비싼다는 핑계로 후원만 하던 생계 행등이 큰 도움이  
되는 느낌은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직접 행등에  
주는 그린피스 장난감을 보면서 세 번 마음 잡게 됩니다.  
동행자가 앞산등을 제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

- 경원 -

세상 모두  
행복하기를 ..  
감동♡정희  
함께 해준 뜻 깊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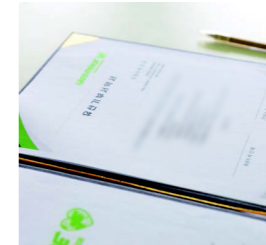
## 후원자 이야기 1.

#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후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기부하는 ‘유산 기부’도 그중 한 방식이죠.  
박선화 후원자님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최초로 유산 기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후원자님을 직접 만나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유산 기부를 결심해 주신 계기와 의미를 들었습니다.

### 아이들에게 파괴된 지구 대신 희망을 유산으로

우연히 TV에서 북극곰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정  
부나 기업의 후원을 안 받는다는 말에 후원을 시  
작했어요. 원래는 크게 환경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대강 이후 천주교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인간  
이 환경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갖고 후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유산 기부는 사실 전부터 생각 중이었는데요.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암에 걸려 편찮으시다가 한 달  
사이에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충격이 정말 컸죠.  
저도 두 분을 간호하면서 일하느라 건강도 나빠지  
고 심적으로도 크게 힘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정리하다 보니, 제 사망보험의 수  
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게 생각났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어차피 아이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어디 기부할까?’ 생각하다가 그린  
피스에서 혹시 후원금을 조금 올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어  
요.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후  
원금을 올리는 것은 부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  
지만, 유산 기부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  
가 기부처를 찾고 있는데 때마다 연락이 와서, 하  
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수래공



© Yejin Kim / Greenpeace

“아이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준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제 유산을  
기부하자고 생각했죠.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다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가는 거니까요.”

수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떠나면  
서 가져갈 수도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  
는 곳에다 기부를 하자 생각했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환경이 파괴되면서  
힘없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에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도 돌아오고요. 특히 아이들은 아직 살날이 많은  
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사실 전 직접 행진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후원으로 돕  
자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위험을 무릅쓰는 활동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산 기부를 결심하고 나서, 주변에도 제 결정  
을 열심히 알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  
겠다 싶었죠. 사실 유산 기부라는 게 흔하지 않은 방  
식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수익자를 그린피  
스로 바꾼다고 하니 ‘어디라고요?’ 하면서 당황하시  
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  
요. 친한 회사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소방서에  
유산 기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참 잘 생각했다고 해  
줬어요. 제 결정이 앞으로 유산 기부를 고민하는 다  
른 분들께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이야기 2.



## 15년 묵은 약속을 지켜낸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더 큰 세상을 향해 선한 마음을 건네는 한 부부가 그린피스에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로 부터 받은 축의금을 기부해 주신 구향희, 김학준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향희** 20대 초반,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같이 석양을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난 꼭 기부를 하고 싶다고.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 벌써 15년이 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정말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말했어요. 드레스 비싸고 예쁜 거 안 입어도 되는데, 그때 그 말은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부하자고요. 15년이 지난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그린피스에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축의금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Q 왜 환경단체, 그린피스였나요?**  
**향희**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빙하가 녹는다는 등의 기후위기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샴푸를 비누로 바꾸는 작은 행동을 3년째 실천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저를 꼭 지켜본 남편이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땠냐고 먼저 제 안해 줬어요. 원래는 기부처를 아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제 행동과 마음을 잘 알아준 덕이죠. 그렇게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길거리에서 가장 자주 본 그린피스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준** 기부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정말 많았어요. 아동, 장애인 분야가 아닌 환경단체를 선택한 건 일종의 반성인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2세, 3세 아이들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죠. 일회용품을 덜 쓰는 실천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 Q 축의금 기부는 어떤 의미였나요?

**향희** 저라는 사람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의 생태계처럼 사람 간의 관계도 결국 돌고 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내가 베푼 사소한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모여 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께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이 담긴 축의금의 일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돌려드

리는 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축의금 일부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 중에는, 이 사실에 어떤 영감을 받아 좋은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희** 저희의 기부금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얘기를 들었던 것보다 더 추운 날씨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분이 말씀하시길 원래 이런 날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세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의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니 뉴스로 보던 것과는 또 다르게, 충격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학준** 사실 기부를 하면 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하고 엄청난 동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향희**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느꼈어요. 함께 지내는 환자, 일하는 동료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결국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연차 보고서를 위해 후원자님께 드릴 편지를 쓸 때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얼마나 뜻깊은 변화들을 만들었는지 되돌아보며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편지를 써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제가 그린피스 동아시아에서 일한 지 15년이 된 해였기 때문이죠! 이번 편지에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에서 그린피스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후원자님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린피스가 환경단체로서 핵심 환경 이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후위기 캠페인은 관련 업계는 물론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도시 대기오염 측정부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홍보, 전기차 전환, 테크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 기후위기 대응, 피해 국가의 기후정의까지 말이죠. 그리고 2022년, 우리는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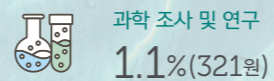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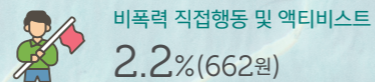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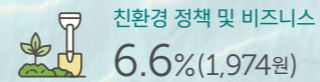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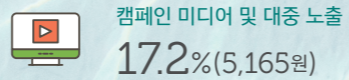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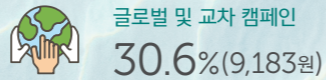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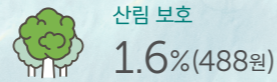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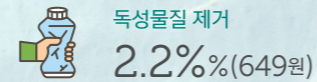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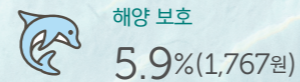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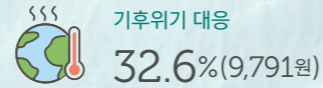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린피스의 강점은 단지 유연하고 발 빠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화를 이루어 냅니다. 지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뿌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린피스의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강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후원자님들입니다. 어떤 변화도 후원자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성장해 온 것처럼, 그린피스 동아시아와 후원자님들도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008년에 2,415명이었던 후원자님들이 2023년에는 22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상 신뢰를 보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함께 만들어 주신 연차 보고서를 즐겁게 읽어주셨기를 바라며, 그린피스 가족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은 길을 자랑스럽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지구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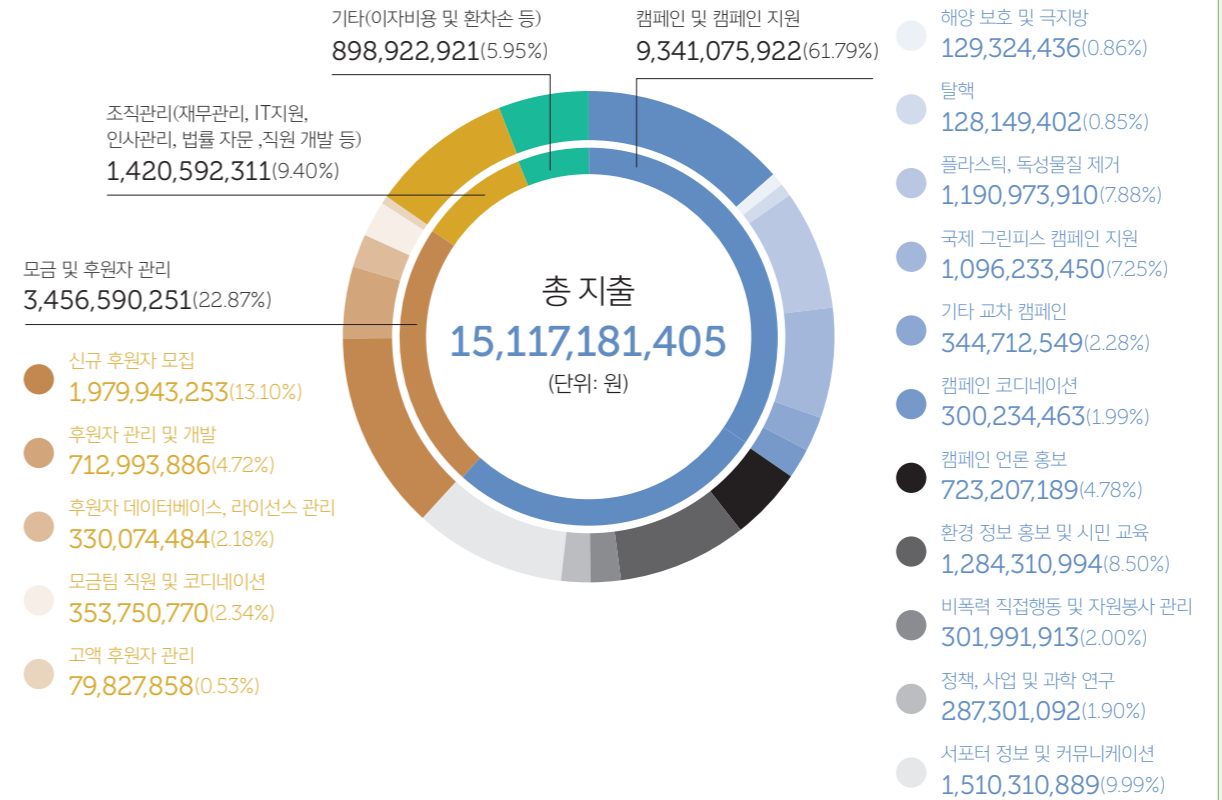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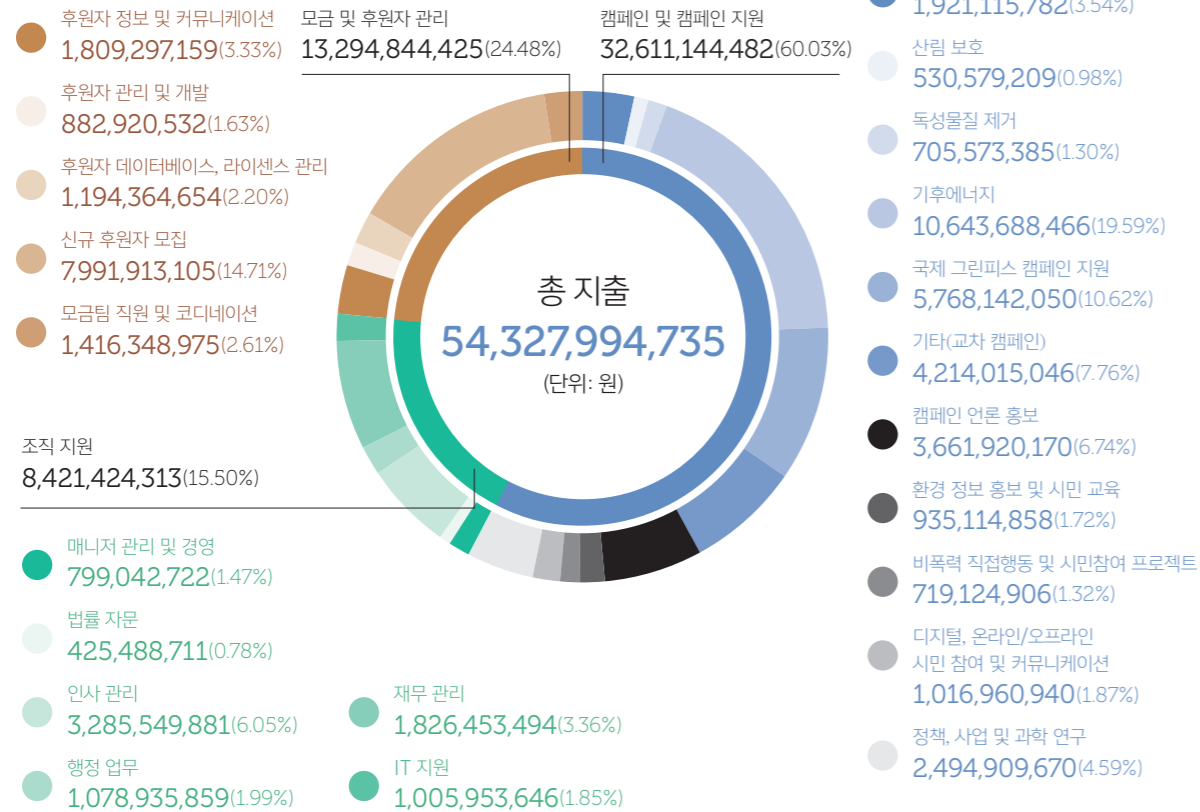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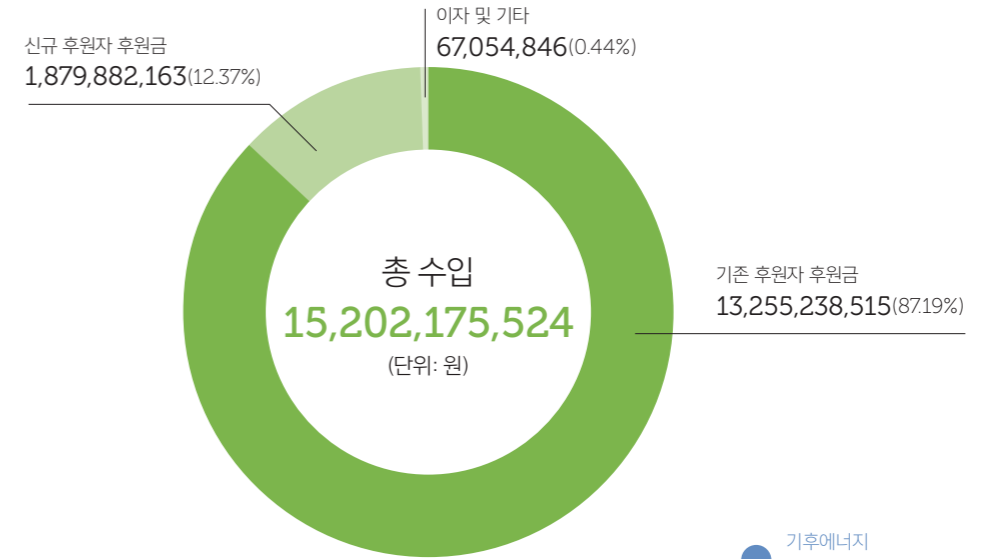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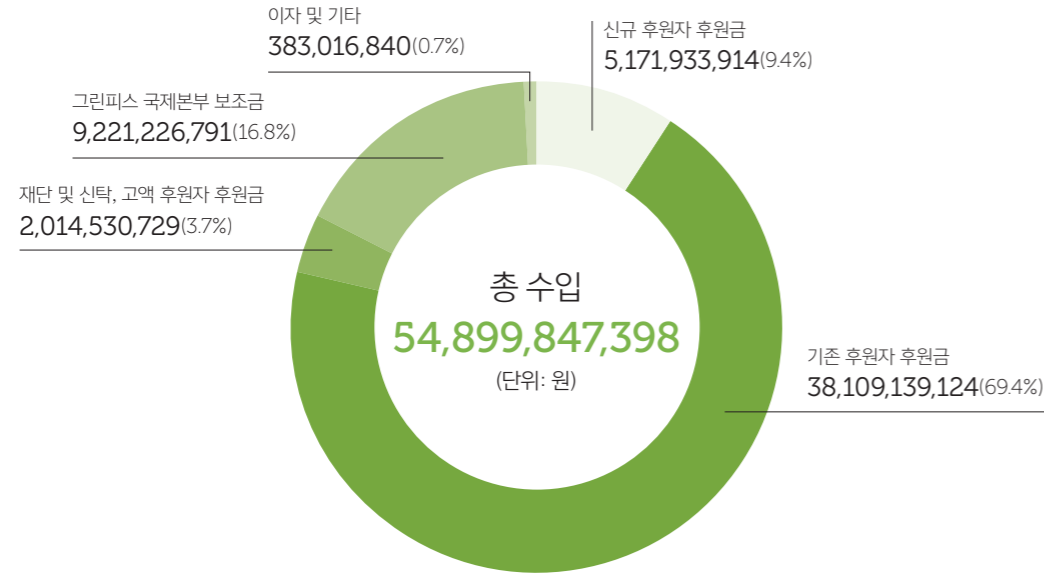
##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2022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 2022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총 지출의 0.01% 미만으로 구성된 부수적인 지출 항목은 별도로 항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금융자산 당기손익의 공정가치 손실로 2022년 총 581,515원입니다.



##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총액 10,643,688,466원

### 에너지 솔루션

#### — 서울 사무소

1,653,220,032원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기후참정권: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14,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편지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보내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주요 대선 후보가 선거 전,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는 답변을 보내었습니다.
-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함께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평가했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논평으로 새 정부의 기후 공약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높이기 위해, 대형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동아시아의 여러 전자 기업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삼성전자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2022년 9월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탈원전:

-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과 한국의 탈원전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발전소가 가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 초노딜 원전 방사능 조사 결과를 알리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린피스 독일사무소의 조사팀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현지 과학자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으며,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7분 분량의 영상이 방영되는 등 총 24개의 주요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공개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뤘습니다. 13개 주요 언론 매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를 추적하여 월성 원전 1기의 방사성 물질 누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기후 교육과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기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 시민들이 자연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 국내 1위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인 티처빌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린피스의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2,600명 이상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기후교육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사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기후행동교사모임'을 조직했습니다.
-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교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 식량안보,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시리즈를 일반 대중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 달리기 앱 '런데이'와 협업하여 3,100명 이상이 꿀벌 실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달리기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탄소 중립 약속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며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해 2021년 여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769,159,314원

380,756,816원

1,251,145,734원

### 재생가능에너지

#### — 타이베이 사무소

2,466,580,411원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4%가 2030년까지 신규 화석연료 차량 판매 중단을 지지했습니다.

- 2022년 8월, 무디스 ESG 솔루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측면의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기후 대응의 시급성을 투자자와 언론에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습니다. 친환경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토요타는 경영진 교체 압박을 받았고, 새 CEO는 전기차 산업에 더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화석 연료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공급망을 탈탄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두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이터, 블룸버그, SCMP, 차이신 등 영향력 있는 영국 및 중국 언론 매체에 널리 보도되었고, 그린피스와 중국 자동차 회사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지역 기업과 정부를 위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도시 기후 정책 활동:

- 대만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해 대만의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업주들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을 선언하는 기업의 움직임을 조성해 대만 정부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80개 이상의 현지 중소기업이 그린피스의 RE10x10 기후 선언에 동참하고, 2025년까지 최소 10%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세계경제포럼, 유럽연합 등 유명 기관을 초청하고, 수백 명의 대만 산업계 리더가 모인 포럼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의 최근 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대만 입법원은 기후법을 개정하고 대만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022년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2,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후 공약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3인 모두가 채택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타이베이 시장은 2050년까지 타이베이의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세우는 데 동의했습니다.

#### 기후 교육:

- 젊은 세대에게 기후변화를 교육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녹색 미래 아카데미를 작년어 이어 계속했습니다. 대만에서 1,000명 이상의 교사와 14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 대만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그린피스 행사를 주최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 매월 온라인 강연을 열고, 오프라인 캠퍼스 강연을 40회 이상 개최하여 교사, 학생, 일반인이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000,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포함하여 중요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했습니다.

32,609,046원

### 녹색 에너지 투자

#### — 베이징 사무소

929,798,727원

-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자 저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저장성 당국은 대부분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중국의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석탄' 공약 이후, 해외 석탄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널리 알렸습니다. 석탄 투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주요 언론사에 사설을 게재하여 1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관계 주요 인사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 상당수의 중국 국유 기업들이 직면한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재생에너지가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원이 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저탄소 해결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화석연료의 경제적 위험을 알리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해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을 통해 500건 이상 국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중국 기업들이 저탄소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법 관련 시장의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과 투자자, 기타 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기업 대상 기후 캠페인

### — 베이징 사무소

898,435,343원

- 중국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를 설정해 중국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자산운용기관들의 기후 관련 투자 성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에 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월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주요 금융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알리바바, JD, 디디, 메이투안 등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에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탄소 목표를 추적하고, 친환경 전력 조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 기술 산업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추적 -클린 클라우드 2022>와 <재생 에너지 사례 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업계의 기후 행동에 대한 지식, 경험과 자원 교환을 위해 최고 경영진과 데이터센터장, 최종 사용자, 관리자 및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중국 최대 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접 대화하며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탄소 발자국 감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주요 미디어에 보고서와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 10월, 전 세계 주요 가전제품 기업의 공급망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공급 변화: 가전제품 브랜드와 주요 공급업체의 기후 공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렉서어 프리시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향후 이 기업들의 기후 행동에 그린피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기후

### — 도쿄 사무소

872,781,012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탄소 배출 제로'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 일본 내 신축 건물에 단열재를 의무화하여 난방에 필요한 연료의 양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열재 의무화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당초 연기될 예정이었던 이 의무화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신축되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도쿄시의 제안을 지지하는 청정 에너지 캠페인을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협의 기간동안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장려하여 2022년 12월 성공적으로 조례 통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일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요코하마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후 문제를 요코하마시의 최우선 의제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이에 화답해 의회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린피스가 '친환경을 향한 레이스'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소니는 2022년 5월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자사 사업장에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며, 2040년까지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그린피스는 소니, 샤프 등 일본 IT 대기업 5곳의 공급망에서 탄소 감축 현황을 조사한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도시 기후 대응 및 에너지 솔루션

### — 홍콩 사무소

84,679,548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선언에 맞춰, 지방 정부 역시 탄소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탄소 배출량을 대중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60개 이상 정부 부처의 탄소 감축 대책을 효과성과 효율성, 대담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기상이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의 일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 8-9월 150명의 실의 위생 및 해충 방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홍콩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온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외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 방사선 보호

861,433,767원

각국정부가 모든 형태의 원자력 발전을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초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처한 위험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의 승인을 받아 2022년 7월 초르노빌 원전 근처에서 일주일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현장의 방사능 수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정치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 인간이 출입할 수 없는 심각한 오염 구역인 '제외구역'의 내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격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전쟁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초르노빌의 현장을 기록하고 온라인 스토리 맵을 제작했습니다.

## 동아시아 기후 대응

101,506,300원

전 세계의 기상이변, 기후 유출 등의 환경 재해가 발생했을 때 뉴스 속보에 대응하고 화석 연료 퇴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 2022년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의적인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수많은 언론 보도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 폭염, 가뭄, 산불 등 동아시아 및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대중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 석탄,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341,582,416원

각국 정부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 세계 대기질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대기오염 팀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전 세계 20여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해 대기질 및 화석 연료 사용의 세계적인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7개 국가에서 대기질 측정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취약 계층이 경험하는 대기오염 노출을 분석하는 과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 국가 인구의 99%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 시민들이 직접 찍은 푸른 하늘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글로벌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64개 국가 및 지역에서 1,148명의 시민들이 1,500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 해양 보호

총액 1,921,115,782원

### 해양 보호

1,682,145,471원

2030년까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30x30)를 가지고 유엔에서 강력한 글로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그린피스의 첫 브리핑은 2005년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시민분들의 힘으로, 각국 정부는 마침내 2023년 3월 글로벌 해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린피스 정원에 서명하여 해양 보호 운동에 힘을 보탰으며, 이 중 동아시아에서는 32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과 과학자들은 대서양에서 벌어지는 불법 해양 조업을 폭로하고 기록했으며, 남극에서는 기후위기가 남극 펭귄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 전문 위원, 과학자, 법률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국내 및 국제기관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 정부가 30x30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남극 사진전을 개최하고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드론쇼를 통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4만 2천여 명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관광 플랫폼 및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관찰 가이드를 발표하여 해양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5만 6,000명 이상의 시민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했습니다.

### 불법어업 및 남획

208,408,465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아시아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타이베이 사무소

대만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을 중단할 것과 대만의 해양 환경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어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인신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 어부들이 겪는 가혹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 캠페인 활동 이후 대만 정부는 원양어업의 규제를 다시 살피고, 원양어선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 사무소와 함께 미국의 주요 수산물 브랜드 범블비(Bumble Bee)와 그 소유주인 대만 FCF에 대해 조사하고, 두 회사의



- 공급망에서 불법 어업과 인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 해양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15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정부 청사 앞에서 직접 해양 보호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다음 입법 단계로 통과되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 중국 국내를 포함한 원양 어업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에 서한을 통해 원양어업과 관련한 외국의 법률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린피스와 그린피스의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법률의 개정 및 입법 과정의 여론 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특정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했습니다.

30,561,846원



**산림 보호**

총액 530,579,209원

**글로벌 산림 보호**

530,579,209원

전 세계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각국 정부에 산림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 2022년 6월, 아마존이 가진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는 아마존 국립연구소와 그 협력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아마존강을 탐험했습니다. 아마존 생물 다양성 연구는 지역 사회가 숲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 삼림 벌채의 주요 원인과 삼림 벌채가 국제 무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 아마존 탐사 도중 영국 기자와 브라질 원주민 전문가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런던, 워싱턴 DC에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 아래 브라질 아마존에서 삼림 벌채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유럽연합은 삼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가정에서 쓰이는 커피와 초콜릿 같은 음식과 물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삼림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베이징 팀은 중국의 천연림 복원을 위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산림 보존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단편 영상 공모전과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고, 총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총액 705,573,385원

**플라스틱 프리**

705,573,385원

서울, 타이베이, 홍콩, 도쿄 사무소가 힘을 합쳐 대중과 미디어, 정부, 생산자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사무소**

- 플라스틱 위기 해결의 열쇠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해결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매년 일반폐기물의 78%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플라스틱 사용 감소 트렌드 및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주류 언론에 논평을 기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1,000여 가구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대규모 가정 내 플라스틱 쓰레기 실태조사인 ‘플록조사’를 진행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MBC의 기자들이 직접 플록조사에 참여해 황금 시대에 보도함으로써 플라스틱 줄이기 및 재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홍콩 사무소**

-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콩에서 실현 가능한 재사용 컵 및 재사용 용기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솔루션 기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차 캠페인**

총액 4,214,015,046원

**홍콩 도시 개발**

434,888,858원

지역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홍콩 정부의 대규모 매립 사업 ‘란타우 투모로우 비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현재까지 186,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란타우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주택 문제 완화를 위해 매립 대신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개발 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433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부지가 정부의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보고서를 포함해, 5건의 보고서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개발 부지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 위성 이미지, 현장 조사 및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계획의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 11개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정부에 토지 사용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지역 전문가 및 학자들과 협력을 통해 재정, 환경, 기후 측면에서 전혀 없는 위험을 초래할 대규모 매립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IT 스타트업 및 37개 카페와 협력해 재사용 가능한 컵 대여 시스템을 출시해, 9개월 만에 1,100명 이상의 커피 애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3,0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많은 레스토랑과 대형 커피 체인점의 참여를 통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문조사를 진행해 코로나19기간 동안 홍콩에서 연간 4억 개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음식을 포장할 때 재사용 가능한 수저를 빌릴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지도를 출시하고, 뉴욕에서 유일하게 음료수 종이 팩을 재활용하는 업체인 밀밀(MilMil)의 대표를 연사로 초청해 플라스틱 재사용과 감축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6월, 플라스틱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만 정부 및 주요 소매업체들에 플라스틱 프리 및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대만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만 정부는 모든 음료 체인점에서 개인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소 5%의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 대여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2023년 7월부터 폴리염화비닐(PVC)이 포함된 식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 및 판매도 금지됩니다. 한편, 타이베이시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대만의 소매업체들이 36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과 정부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대만 최초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만 흑곰 및 대만 물사슴을 포함한 대만 내 여러 보호종의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촉구하는 기록제가 되었습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슈퍼마켓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세 번째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매업체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 결과,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PX마트는 플라스틱 없는 쇼핑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쿄 사무소**

- 비철 협약 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일본 정부에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 일본 내 대형 커피 체인점의 일회용 컵 소비량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소비량이 체인점 중 가장 많고 재사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대형 커피 체인 업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없는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니시오기쿠보 지역에서 지역 상점들과 협력해 재사용 및 리필을 장려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기후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소통**  
— 베이징 사무소  
3,779,126,188원

지역사회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기후 비상사태를 사회경제적 이슈로 정착시키며,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캠페인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 온라인 세미나 및 두 차례의 오프라인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8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팟캐스트 방송 3편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홍콩 선전 바이시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 기후 행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공공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COP27기간 동안 매뉴얼을 배포하고, 환경스토리네트워킹과 협력해 베이징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 친화적인 도시 및 건축 설계를 소개하는 시티워크(city-walk) 프로그램이나, 이상기후를 주제로 한 참여형 연극을 기록한 비디오 시리즈 등 대중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총액 5,768,142,050원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캠페인 지원**  
4,700,465,000원

2022년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무소의 지역사회 소통 및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통해 국가 기후 정책을 발전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며 기후 행동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방콕 팀**
-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건강 -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고, 정부에 기후 행동에 나서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전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이 마침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초미세먼지 안전 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통해 5명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선출직 공무원, 정당이 공개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의 감시를 허용하라는 그린피스의 기후 정책 권고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각종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7개의 공립 병원과 6개 대학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자카르타 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190개 이상의 현지 단체와 협력해 기후 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서와 성명서를 발표해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캠페인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녹색 경제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한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2022년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세 가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 팜유 기업들의 파푸아 산림 개간, 규제 없는 화석 연료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어업에서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등 인도네시아에서 파괴적인 운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6개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마닐라 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기후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인권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기후행동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 2015년, 그린피스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구로 인해,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2,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조직해 교육 세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쿠알라룸푸르 팀**
-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기질이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경우 22,0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연간 약 5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기 오염 보고서를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최초로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에 외교 및 행동 중심의 책임을 부여하는 '국경을 초월한 연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14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데 지지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조사 및 캠페인 지원**  
1,067,677,050원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과 글로벌 규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아마존 캠페인, 기후 정의 캠페인 등 글로벌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시민 참여 전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정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담 부서를 설치해, 국제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8,828,030,544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5,613,995,968원

**캠페인 / 환경 프로젝트 홍보**  
1,952,775,066원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3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7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미디어와 대중의 문외에 대응하고, 미디어 및 오피니언 리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환경 이슈 영상 제작,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환경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공유, 교육기관 세미나 참여, 홍보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구축 / 네트워킹**  
283,554,410원

- 지역 사회와 협력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해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1,016,960,940원

- 환경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해양, 산림, 기후위기 등 지역과 글로벌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343,732,019원

- 환경 관련 뉴스 보도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심층 분석, 여론 동향 해석, 캠페인 메시지 분석 및 개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멀티미디어**  
1,081,858,675원

-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그래픽,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환경 정보 홍보**  
935,114,858원

- 후원자 및 대중에 최신 환경 정보와 캠페인 성과, 서포터즈 활동 등을 알리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작해 웹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카카오프렌즈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 기후 및 인권, 해양 보호, 동물 보호, 기상이변 등과 관련된 환경 과학 자료를 제작해 기후 비상사태와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719,124,906원

###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 241,763,583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액티비스트 개발 및 트레이닝, 시민 조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트레이닝 및 장비

141,166,339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도구, 장비 및 안전 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 액션, 자원활동가 관리 및 창고

#### 336,194,984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494,909,670원

### 지역 조사 및 연구

395,130,274원

- 긴급한 환경 재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항공 촬영 영상을 활용한 환경 범죄 기록, 위성을 활용한 위치 파악 및 추적, 선박 추적 등 혁신적인 연구 및 조사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환경 사고나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대응 동원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구 역량 개발

156,316,932원

-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지식 공유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 고급 인지과학 적용

1,594,071,220원

-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 첨단 인지과학을 캠페인에 적용해 과학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습관 및 사회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이를 전 세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 자문 - 공공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금융

#### 349,391,244원

-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각국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치계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금융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발안자로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 왜 여러분의 후원이 중요할까요?



© Lewis Burnett / Greenpeace

그린피스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정치 단체로부터 절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향과 간섭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데 개인과 민간 독립 재단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의 지원 없이 그린피스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 SORCHA LEWIS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모든 동식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지구는 모든 생명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뿐인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을 함께 지켜주세요!

링크를 통해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세요!



© Adrian Czech / Greenpeace